




**커버스토리** ▶ 서울인쇄조합, 2023 인쇄학과 해외연수 실시  
**이슈** ▶ 인쇄물 적정가격, 인쇄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클로즈업** ▶ 서울인쇄조합 각 부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 일타강사의 현명한 선택

일타페이퍼는 촉감이 부드러워 책냄김과 필기감이 탁월합니다. 특히 무형광 제작으로 눈부심이 없어 수험서 대학교재 학습지 전용지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종이유통문화의 선두기업 



04

08

12

13

인쇄저널 월간(비매출) 12월호 | 통권 433

발행일	2023년 12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윤중
편집위원장	서동숙
편집위원	강혜성, 류윤현, 목영만, 채연화
실무	사업홍보팀(오혜경, 남영복) ☎ 02-333-8631(내선 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생림동 146-1)
디자인 편집	카오스넷근아 / ☎ 02-2278-1577
인쇄	(주)투데이아트 / ☎ 02-2265-6119



※ 인쇄저널의 인쇄 및 용지 제공은 (주)투데이아트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04 커버스토리 • 서울인쇄조합, 2023 인쇄학과 해외연수 실시
- 08 이슈 •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 10 클로즈업 • 책자인쇄부회·일반인쇄부회·상업인쇄부회 정기총회 개최
- 12 현장스케치 • 2023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 참가
- 13 컨퍼런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컨퍼런스
- 14 Printing Journal News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최고경영자 워크숍 개최
  -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상근이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 제도개선위원회, 원로 및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 타슈켄트 섬유경공업대학 인쇄학부장, 서울인쇄조합 방문
  - 대한인쇄문화협회, 2023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참가
  - 서동숙 홍보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대통령표창 수상
  - 2023 국제친환경인쇄컨퍼런스
  - 한국인쇄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DKSH코리아, 친환경 연포장 인쇄 솔루션 세미나 개최
  - FSC코리아, 2번째 비즈니스 포럼 개최
  - 복사기 문서 보안 강화 안면인식 리더기 출시
  - 조합원사 알림
- 18 신제품 소개 • 상동화, eXact Basic Spectro 국내 출시





서울인쇄조합, 2023 인쇄학과 해외연수 실시

## 인쇄인의 꿈을 갖고 만족하는 직업인으로 인쇄 전공 학생들에게 자긍심 부여

서울인쇄조합은 ‘2023 인쇄학과 해외연수’를 지난 10월 30일(월)부터 11월 1일(수)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했다.

글로벌 우수 기능인력 육성을 목표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해외연수는 팬데믹 이후 기능인력난을 겪고 있는 인쇄업계에 우수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인쇄조합을 비롯해 한국인쇄진흥재단(이사장 김병순)과 (주)삼원인쇄(대표이사 원종철)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후지필름비와 한국하이델베르크의 협조로 일본 후지필름비 쇼룸과 하이델베르크제팬 쇼룸을 방문했다. 또한,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미즈가미(MIC)주식회사의 본사와 타마인쇄공장, 그리고 섀넌트 물류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이 밖에 공식 일정과 함께 현지 문화체험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윤중 이사장은 해외연수를 마치고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해외연수 보고회 인사말에서 “학생 여러분을 다시 뵈게 되어 반갑다”며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지난 2박 3일 해외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을 것이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쇄업계에 꼭 진출하길 기대하고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미력하나마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서울공업고등학교 그래픽아트과 2학년 김수한 학생의 참관기를 대표로 실어 이번 해외연수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학생들의 참관기는 조합 블로그를 통해 볼 수 있다.

### 해외연수 참관기

“직접 인쇄시설을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비로소 한꺼번에 이해돼”

서울공업고등학교 그래픽아트과 2학년 김수한 학생

#### 1일차 ▶ 후지필름비 쇼룸 방문

##### ●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발표하고 출력, 조작도 해보고 다양한 체험

먼저 해외연수라는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인쇄정보협동조합 이사장님과 기능인력양성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찬조해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일차에는 후지필름비즈니스인노베이션에 갔습니다.

회사가 엄청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후지필름 쇼룸에 있는 디지털 인쇄기와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우리들이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에 금색과 은색을 넣어 조별로 발표하고 디자인의 의도와 피드백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디지털 인쇄기 Revoria PC1120의 기능과 성능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종이 디자인 및 특수 잉크가 들어간 디자인을 보여주며 직접 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디자인한 것을 디지털 인쇄기 Revoria PC1120 출력해 주셨고 출력한 인쇄물을 한 장씩 기념으로 주셨습니다.

뽀아 주신 디자인들을 실제로 보면서 각 디자인의 대표 학생들이 나와서 그 디자인의 소개 및 간단한 Q&A를 하고 후지필름 직원분들이 디자인에 대해 피드백도 해주시고 너무 좋게 말씀까지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 견학이 끝날 때쯤 후지필름에서 명함(이름을 영어로 쓰여있는 인쇄물)을 만들 기회를 주셔서 자기 명함을 만들어 기념으로 주셨는데 명함 테두리를 잘라주는 기계를 직접 조작해보라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더욱 인상이 깊었습니다.

#### 2일차 ▶ 미즈가미 및 하이델베르크 제팬 데모센터 방문

##### ● 미즈가미 회장의 열정과 특강, 인쇄 전라인을 살펴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비로소 한꺼번에 이해돼

2일차에는 미즈가미 회사와 하이델베르크 제팬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미즈가미 회사에 대해 동영상으로 보고 얘기들었을 때 미즈가미 회사가 일본회사 중 제일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보니 정말 그 말처럼 너무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미즈가미 회사에 우리 학교의 선배님이 취업하셔서 통역으로 우리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선배도 2016년에 우리와 같이 학생 때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이곳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고 회사 엄청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즈가미 회장이 우리들을 위해 이벤트도 해주시고 특강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쇄와 아날로그 인쇄의 융합 등 다양한 예를 들어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회장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즈가미 회사에 있는 동안 너무 재미있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해 회전 초밥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회전하는 기구들 위에 직접 만든 초밥이 있어

너무 신기했고 감사했습니다. 회전 초밥 먹으면서 회장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직접 오셔서 친절히 인사까지 해주셔서 미즈가미 회사에 꼭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선배님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도 해주시고 너무 멋져 보였고 나도 저렇게 후배들이 오면 선배님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좋은 회사 다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미즈가미 직원분들도 저희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고,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는지 먼저 다가오셔서 물어보셨고 좋은 답변까지 해주셔서 더욱 미즈가미와 같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과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회사의 취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팬 쇼룸 방문은 가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직접 인쇄기계를 자세히 관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은 직접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회사에 대해 PPT를 보는데 의자가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의자가 박스였고 그 박스는 하이델베르크 회사가 만든 박스라 더욱 생각이 많이 남는 박스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인쇄기계는 작은 것이지만 전시장에 있는 7색기 인쇄기를 직접 가동해 주시면서 설명 해주셨고, 후가공 기계도 기능과 성능도 직접 조작하면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비로소 한꺼번에 이해가 되어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종이 추리기를 배웠는데 종이를 사람 손이 아닌 자동으로 추려주는 기계가 있었고 재단까지 작업자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공정을 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팬 회사 견학이 끝날 때 저희 학생들에게 젤리와 장갑 등을 챙겨주셔서 더욱 인상이 깊었고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광보다 회사 견학으로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까지**

2일 동안 일본 회사를 둘러보면서 많이 느낀 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생각과 제가 다니고 싶은 회사들이 생겨서 너무 신기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쇄회사를 몰랐었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마음이 잡히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무엇보다 인쇄회사에 대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쇄회사를 잘 모르고 취업을 잘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좋은 시설에서 일하고 돈도 다른 회사의 많이 받고 다른 직종보다 시설들도 엄청 좋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도 인쇄회사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엄청 큰 임팩트를 남겨 주셔서 절대로 잊지 못할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일본 간다는 생각으로만 갔는데 막상 가니 긴장되고 기대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 인쇄 관련 회사도 안가 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후지필름, 미즈가미, 하이델베르크 제편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장비들이 첨단 기계라고서 좋았고 너무 깨끗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어서 인쇄회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사 하나하나가 기억에 계속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 진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는 진학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여러 회사를 방문하면서 취업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되고 더욱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오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와서 놀고 갈 생각만 있었는데 그 반대로 회사를 잘 둘러보고 배운 게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연수 중 이사장님께서 한국에도 이런 시설을 갖춘 회사도 많다고 하니 다음에 이런 회사들을 견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대됩니다.

일본 해외연수를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은 과인 친구들과 동생들이랑 가서 더욱 좋았고 각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가서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 관점들을 듣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도 말해서 많이 놀라면서도 더 배워 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처음에 해외연수 간다고 들었을 때 안 믿기고 있었는데 가기 전 OT 갔을 때부터 실감이 났고 당일이 됐을 때 얼른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행복해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로 일본으로 가게 되어 좋았고 또한 첫 해외가 일본이라서 좋았으며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2박 3일이라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2박 3일을 진짜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님, 위원장님과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잘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18년 인생에서 제일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3일차에는 저희 학생들 관광하라고 시간까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관광보다 회사 견학이 더욱 재미있었고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까지 하게 해주신 이사장님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해외연수 일정 요약**

서울인쇄조합은 이번 해외연수를 위해 기능인력양성위원회를 통해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처 및 협력업체, 후원업체와 사전조율을 완료한 후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 사전설명회에 이어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공업고등학교의 해외연수 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 인쇄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사전설명회 개최**

- 일시 : 2023. 10. 11.(수) 15:00
- 장소 : 한국후지필름BI 소룸



해외연수에 방문하게 될 후지필름과 하이델베르크 소룸, 그리고 미즈가미인쇄사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와 준비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해외연수 학생 참관기 바로 가기**

**서울공업고등학교 그래픽아트과**

-  2학년 최유찬  
“학교에서 인쇄기계를 교과서나 영상으로 여러번 설명되었지만 직접 디자인한 것을 인쇄하고 결과물을 보니 더욱 재미있고 흥미가 생겨”
-  2학년 김수한  
“18년 인생에서 제일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
-  2학년 이현구  
“여러 가지 인쇄기를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라 신기하면서도 너무나도 특별하고 의미 있었던 유익한 시간”
-  2학년 김강일  
“인쇄라는 것에 대하여 열망이 커지고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좋았다.”



**해외연수 1일차**

- 09:00 인천공항 출발
- 14:30 일본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방문 투어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을 별색 출력하고 품평회를 통한 피드백으로 현장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해외연수 2일차**

- 08:00 일본 미즈가미 인쇄사 공장 및 본사 투어
- 14:00 하이델베르크 투어

프리프레스에서 인쇄, 후공정에 이르는 인쇄 전 공정을 최첨단 설비로 직접 시연하고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설명했다.

**해외연수 보고회 개최**

- 일시 : 2023. 11. 20.(월) 15:00
- 장소 : 서울공업고등학교 대회의실

해외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의 참관기 발표 및 보고회와 함께 현장실습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회의도 진행되었다.

-  2학년 서주영  
“이번에는 일본이었지만 나중에는 국내의 인쇄 업체도 가보고 싶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쇄기계도 보고 싶어”
-  1학년 김태현  
“수업으로만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직접 보고 설명들으면서 해결해서 좋았다.”
-  1학년 김현빈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와닿았던 시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고 싶어”
-  2학년 배준서  
“연수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인쇄에 푹 빠질 수 있었던 꿈만 같은 경험, 인쇄 엔지니어로 인쇄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  2학년 임가은  
“인쇄기 설명만 들었지 했는데 직접 가동해 주시는 것도 보고 직접 출력도 해보고 너무 유익한 시간”

-  1학년 박진호  
“인쇄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 신구대학교 그래픽아트과**
-  2학년 김노수  
“경쟁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하는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계기”
  -  1학년 조명준  
“인쇄쪽으로 배운 것도 많았지만, 일본 인쇄기업의 경영 철학과 유통과정 등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 기업승계 준비에 큰 도움”
-  사전설명회 사진모음 바로 가기  
  해외연수 사진 모음 바로 가기  
  해외연수 보고회 사진 모음 바로 가기



#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인쇄물 적정가격, 인쇄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22년 마련된 인쇄물 적정가격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를 지난 11월 30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정부 조달법제 현황 및 문제점, 국가계약법령 개선사항을 분석했다. 다음은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인쇄기준요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 심화

### ● 1977년 인쇄기준요금 책정 발표 후 2006년부터 발표하지 않아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 인쇄물 가격에 적용되는 기준인 '인쇄기준요금'을 책정하여 1977년 발표하였고, 2000년 이후 연도별 인쇄기준요금을 격년 단위로 약 2% 정도 인상하는 수준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부터는 인쇄비 조정에 대해 조달청과 인쇄업체의 의견차로 인해 인쇄기준요금이 발표하지 않았다.

### ● 2005년 발표한 인쇄기준요금 활용하다 2011년 폐지

조달청이 인쇄기준요금을 발표하지 않은 2006년 이후 공공 수요기관 등에서는 기존 2005년 조달청이 발표한 인쇄기준요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오다가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인쇄물 업체 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5월 인쇄기준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가격을 결정하였다.

## 주요공공기관 인쇄요금 책정 기준

수요부서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최근 거래실례가격 ●(예외-최근 거래 실례 가격이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 견적 평균가격
	신규 구매의 경우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
	예산안 작성의 경우	●인쇄기준가격 적용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비용 집행의 경우	●3개 이상 업체의 평균가격 등을 참고하여 비용산출
조달청	기초금액 결정의 경우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의 절대적 활용보다는 다수의 견적이, 예산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검토

### ● 폐지 이후 인쇄업계 피해가 극심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최저가 입찰제도 등으로 인쇄물 가격이 매년 구조적으로 하락하여 인쇄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졌다. 이는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인쇄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단가 하락, 시장 왜곡에 따른 가격 덩핑까지 발생하게 했다. 또한, 미디어 매체 변화에 따른 시장 축소, 경기 불황에 따른 물량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인쇄업계의 영업이익률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EBS 교재 낙찰 하한률이 40% 이하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포기, 교재 입찰 시작 이래 최초로 유찰사태가 발생했다. 2021년까지 교재제작에 참여한 인쇄업체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낙찰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 국내 공공 조달에서 적정가격 운영 사례

우리나라는 현재 시설공사 및 기초 공통자재의 적정가격을 조달청이 매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참가가격을 바탕으로 조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가격조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통자재 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매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격정보가 공개된 시설자재는 토목(133개), 건축(2,109개), 기계설비(3,115개), 전기정보통신(1,503개)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가격에 대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수량, 난이도, 수급 상황 등에 따른 가격변동을 유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2018년 조달청은 「시설 분야 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입찰 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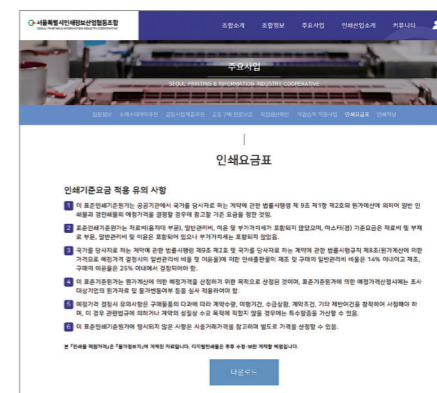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보조달 제도는 원칙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단순 최저가격이 아닌 가격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미국은 합리적인 금액을 통해 적절한 가격과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계약을 체결,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한다. 영국도 최저가격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품질과 가격의 균형성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 사업 중간보고회 모습



물가정보지에 지난 10월부터 실린 인쇄기준요금



서울인쇄조합 홈페이지에서 인쇄요금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경로 : 서울인쇄조합 홈페이지 (www.spic.or.kr) → 주요사업 → 인쇄요금표

●QR 코드 바로가기



을 최종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단순한 가격 경쟁에 의한 출혈을 막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호주는 최저가격이 항상 가치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최저가격이 아닌 최적의 가격을 경쟁하는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반 경쟁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을 원칙으로 하나 '최저입찰가격 조사제도'와 '최저제한가격제도' 등을 통해 가격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있다.

## 개선방안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후문에서 법령의 규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경우 결정가격 범위 내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쇄용역 결정가격 범위를 정하여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예상가격기준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표가 있을 경우 공표된 적

정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제한가격제도,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별공무원이 예정가격산정과 입찰가격 평가 시에 부당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도 필요하다.

### ● 인쇄물 적정가격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월간 물가자료에 인쇄물 적정가격을 게재하고 있다. 물가자료에 게재된 인쇄물 적정가격이 인쇄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업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쇄물 제작 단가가 결정될 경우 정부가 허가한 물가정보지에 실린 인쇄물 가격 자체가 신뢰를 잃게 돼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물가자료에 게재된 인쇄물 적정가격이 인쇄물 제작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 및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인쇄조합 각 부회 정기총회 개최

# 2023년도 경과 및 결산보고, 부회 중심으로 조합 중심 역할 요청

서울인쇄조합의 책자인쇄부회, 일반인쇄부회, 상업인쇄부회 등 3부회는 지난달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각 부회 축사에서 “연말이라 바쁘고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준비하신 간사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부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사장 취임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장애인단체수 의제도 계약 개선, 인쇄기준요금 적용, 세운지구 재개발 시 선 산업단지 조성, 기술인력 양성 등 업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조합 캘린더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걸어두고 싶은 캘린더를 제작하여 캘린더 시장을 확대하고 조합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많은 협조를 바라며 부회를 중심으로 조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각 부회의 이번 정기총회는 2023년도 경과 및 결산보고를 하고 2024년 새해 조합 및 부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인쇄조합은 주생산품목에 따라 책자인쇄부회, 일반인쇄부회, 상업인쇄부회, 전산정보부회를 구성해 조합원들간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핵심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책자인쇄부회 전준호 간사장

## 8년간 공헌한 직전 간사장인 김윤중 이사장에게 감사장 전달



총회 사진모음 바로 가기

책자인쇄부회는 지난 11월 9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준호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11월 간사장으로 취임하여 올 2월 김윤중 이사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세운지구 재개발문제와 기준가격 마련 등 업계 현안의 해결을 위해 설 새 없이 달리다 보니 벌써 총회 날이 되었다”며 “세운재정비 사업은 조합과 우리 업계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하며, 인쇄기준가격 제도화 역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자인쇄부회의 전통인 선배님들의 경험과 경륜, 후배들의 패기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8년간 책자인쇄부회의 화합과 발전에 공헌한 직전 간사장인 김윤중 이사장에게 감사장과 꽃다발로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박래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격려사, 박종세 인쇄산업신문 발행인 및 3부 간사회 임원들이 참석,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그동안 책자를 증정해 왔던 총회 기념품을 올해는 서울인쇄조합이 판매용으로 제작한 VIP 선물용 고급 캘린더로 대신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일반인쇄부회 이태영 간사장

## 경일종합인쇄 임형택 대표에게 공로상 시상



총회 사진모음 바로 가기

일반인쇄부회는 지난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라마다호텔 지하 1층 볼룸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행사 전 안양대학교 신재욱 교수가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총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에 이어 경일종합인쇄 임형택 대표에게 공로상 시상, 이태영 간사장의 개회사,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의 축사, 김정전 한국레이블협회 회장, 이영수 대한그래픽기술협회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부의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단체사진 촬영과 만찬을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이태영 간사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 공로상은 작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일종합인쇄로 일반인쇄부의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축하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학생들은 챗GPT 등 AI 기술을 활용해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림도 그리도록 한다”며 “우리 인쇄인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배워야 대응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상정되었으며 참석한 귀빈들에게는 김윤중 이사장이 직접 서울인쇄조합에서 야심 차게 제작한 VIP 선물용 고급캘린더를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업인쇄부회 모종근 간사장

## 물가정보에 등재한 인쇄기준요금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



총회 사진모음 바로 가기

상업인쇄부회는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1시 라마다호텔 지하 1층 볼룸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모종근 간사장 개회사, 김병순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정세균 부회장 대독)과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조합 상무이사 대독)의 축사, 김정전 레이블협회 회장, 이영수 대한그래픽기술협회 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부의안건 상정,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종근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어려운 때 인쇄물은 가장 먼저 예산을 줄이는 항목으로 인쇄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디지털시대의 빠른 변화로 종이 인쇄물이 줄어들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쇄 수요는 줄어드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익성 확보와 적정가격의 보장이 없는 우리 업계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인쇄연합회와 서울조합의 노력으로 물가협회의 물가정보지에 인쇄물 기준 가격이 10월부터 등재되어 있다”며 “이런 과정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쇄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 요구하고 관철시켜 인정받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엡손과 함께한 체험형 부스와 인쇄문화산업의 우수성을 전시한 조합 홍보부스 전경.

# 서울인쇄조합, 2023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 참가 인쇄 우수성을 알린 체험형 부스와 홍보부스 운영



조합 홍보부스를 찾은 김길성 구청장에게 설명하는 김윤중 이사장.

## 인쇄, 봉제, 조명 등 대표 도심산업 활성화 위해 매년 개최

서울인쇄조합은 서울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이 지난 11월 10일(금)부터 이틀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한 '2023 도심산업 페스타'에 참가했다.

중구는 신당동,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 모여있는 인쇄, 봉제, 조명 등 대표 도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어 제품을 전시, 판매하며 소상공인 간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 산업은 중구에서 50년 이상 뿌리를 내리며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공정 시스템을 지역 내에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도심산업은 최근 최신 기술과 접목돼 다양한 고객의 취향과 수요에 맞춘 소량 생산 등 다채로운 매력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 인쇄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들 제작한 작품 처음 공개

이번 페스타에는 30여 개 업체가 홍보부스를 차리고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도심산업 퍼블릭 페어', '트렌드 마켓'을 진행했다. 또한, '어반 스튜디오'는 도심 산업을 방문객에게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패션 봉제 체험, 첨단 인쇄 기기 체험, 을지로 조명 작품 전시 등을 통해 각 산업의 매력을 맞출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구청에서 운영한 인쇄산업 활성화 지원사업(We Make GOODS in junggu) 참여자들이 제작한 에코백, 달력, 엽서 등 작품 30여 점도 행사 기간에 처음 공개했다. 독립출판을 통해 제작된

서적을 전시, 판매하고 관내 독립서점인 스페인 책방과의 협업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어울림광장 중앙마당에 조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네온사인 조명만들기, 새활용(업사이클링) 봉제교실, 책갈피 만들기 등의 강좌도 열려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조명과 대형 인쇄물을 활용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트렌드 마켓 할인 쿠폰, 굿즈 등도 증정했다.

## 체험형 부스와 홍보부스 운영 통해 인쇄문화산업 더 가까이 알려

한편, 서울인쇄조합은 이번 페스타에 조합원사와 함께 하는 홍보부스와 한국엡손과 함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먼저 홍보부스에서는 조합원사가 제작한 인쇄물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서울지역 인쇄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직지심체요절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영인본 전시 및 홍보 카탈로그 배포를 통해 DDP를 찾은 외국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조합에서 야심 차게 마련한 2024년도 VIP 작품집 & 캘린더를 전시 판매함으로써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국엡손과 함께 운영한 체험 부스에서는 인생 네컷 즉석 사진 촬영, 즉석 감열지 사진 촬영, 네임스티커 프린터 출력 등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부스 운영과 함께 한국엡손이 이상봉 패션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 진행한 디지털 날염 패션 제품 전시 및 동영상 홍보를 진행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컨퍼런스 인쇄 홍보물 제작 시 인종차별, 성차별 배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 웹사이트 홍보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성과를 공유하고 최종 정리하는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컨퍼런스'를 지난 11월 22일(수) 명동 마실커뮤니티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이 참석, 축사와 함께 양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연계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포용적인 사회구축에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인쇄사 등 홍보물 제작 디자이너, 관련학과 학생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김주연 교수가 '현대사회의 변화와 디자인 패러다임'을 주제로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거주 공간 디자인의 변화, COVID-19를 오히려 전환의 도구로 삼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이룬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프레스티 위원회 대표는 '포용적 디자인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디자인이 무엇이며 일제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사례로 포용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연했다.

이밖에도 가족다양성 편견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에서는 웹사이트에서 부와 모, 자녀가 다 있는 가족이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것,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정문화를 당연시 하는 이미지를 개선 전후로 비교한 긍정사례를 소개했으며 미니토코쇼에서는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개선 가이드에 동참했던 심사위원을 비롯한 관련 담당자들이 겪었던 실제 사례를 나누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차별과 편견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노력할 터

한편 전주원 한가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해소를 통해 개인이 선택한 가족의 모습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공공서비스 영역 홍보물에서 가족다양성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제작해야 하는지 나누고 소통하는 이 자리를 통해 공공기관 홍보담당자와 디자이너, 인쇄사 등 제작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김윤중 이사장은 축사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서울인쇄조합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며 가족관련 홍보물 제작 시 다양한 가족 편견을 배제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조합원사는 물론 인쇄업계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사업은 급변하는 가족환경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해소를 통해 가족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을 향상하고자 마련한 컨퍼런스로 향후 보다 나은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활동 및 운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최고경영자 워크숍 개최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참석, 조합 활성화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지난 11월 17일 (금)부터 이틀간 강원도 춘천시에서 「2023 서울지역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동조합의 역할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행사 중 열린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점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 10개 기초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연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조합별 공동사업·R&D사업 등 자치구 지원이 가능한 사안을 발굴, 건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지금이 바로 협동조합의 역할이 부각되는 때”라며, “공동사업과 협업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업계 규제와 애로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위해 지속적 보완 노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1월 22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로비에 국한되어 있어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지금도 20년 전 인쇄단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2023년 10월부터 인쇄기준요금이 물가자료에 게재되었으니 예가 산정 시 꼭 새롭게 산출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도개선위원회, 원로 및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인쇄조합의 현안 및 운영 방안 논의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



원로 및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서울인쇄조합은 지난 11월 23일(목) 제도개선위원회, 11월 27일(월) 원로 및 자문위원회, 12월 1일(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조합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는 조합의 현안 및 운영 방안, 그리고 20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김윤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 2월 이사장 취임 이래 조합과 업계의 수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면서 “마지막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에는 사업과 가정에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했다.

먼저 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조합 제도개선을 위해 앞서줄 것을 요청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제4회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조합 급여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조합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다. 급여규정 개정안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된다.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 역시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후 이사회 의결을 통과하면 개정안을 시행한다.

원로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올 한해 조합의 추진사업을 보고하고 원로위원과 자문위원들로부터 개선사항 및 업계현안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조합의 현안 및 조합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강계획, 그리고 2024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 타슈켄트 섬유경공업대학 인쇄학부장, 서울인쇄조합 방문

인력 수급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 논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섬유경공업대학의 인쇄학부 블라노프 이즈마 일잔 학부장이 지난 11월 28일(화) 서울인쇄조합을 방문,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타슈켄트 섬유경공업대학 인쇄학부와 서울인쇄조합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쇄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 등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윤중 이사장은 이날 “현재 외국인력 유입 시 야기되는 문제들, 즉 인쇄전문인력 부재와 근무지 이탈 등을 해결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상근이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위해 적극 협조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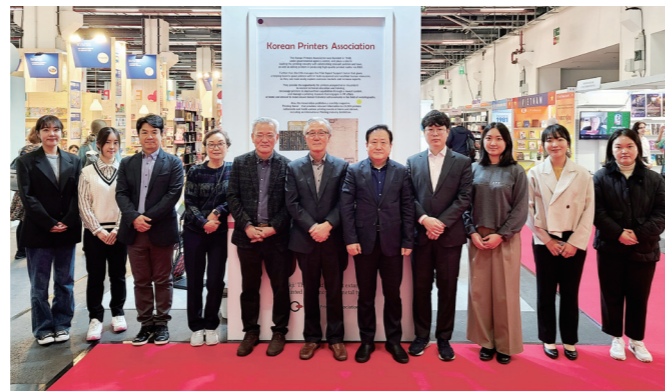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회장 장영진)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1일(화)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및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인쇄조합 상무이사를 포함 15명의 상근이사들이 참석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상근이사들은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 평가가 지난 5월에야 고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인협 프랑크푸르트국제 도서전 참가

6개 업체 참가, 80억 달러 규모 수출 상담



©프린팅코리아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병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메세에서 개최된 2023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해 참가했다. 이번 도서전에서 인협은 우리나라 인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올해 도서전은 전년에 비해 관람객과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B2B 비즈니스데이를 3일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2일은 B2C 일반전시회로 전환해 개최했다.

32㎡ 규모의 한국인쇄문화관은 Printing Korea라는 타이틀로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 자유로운 수출상담을 보장해 금강인쇄 등 6개 업체가 수출상담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 120건 8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 서동숙 홍보미디어위원회 위위원장, 대통령표창 수상

33년간 환경역사를 기록하는 데 공헌



우측이 서동숙 우리손안에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인쇄조합 홍보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숙 우리손안에 대표가 지난 11월 1일(화) 오후 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잡

지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서동숙 대표는 1990년 국내 최초 물전문지 ‘수자원환경’ 발행인을 시작으로 ‘환경신기술’, ‘환경미디어’를 발행하며, 지난 33여 년간 환경역사를 기록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 밖에도 각종 환경세미나, 환경페스티벌 & 마라톤, ESG 환경경영아카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여 회 환경행사를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서동숙 대표는 서울인쇄조합의 홍보미디어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달 발행하는 월간 인쇄저널과 조합 간행물의 편집기획을 진행하고 조합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추진사업 홍보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1908. 11. 1.)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된 날로,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기념해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 진작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2023 국제친환경인쇄컨퍼런스

친환경인쇄 소재의 현황과 발전 전망 발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병순)가 주최하고 월간 프린트트렌드(대표 김용찬)가 주관하는 2023 국제친환경인쇄컨퍼런스가 지난 11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장세훈 대한인쇄문화협회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인쇄업계는 IT산업의 발전과 급격한 트렌드 변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친환경 인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를 간과할 수 없기에 오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자사의 실정에 맞는 친환경인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축사에서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친환경 인쇄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래 인쇄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인쇄업계의 발전 방향을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먼저 오성상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사양기업은 있어도 사양산업은 없다”면서 “변화하고 혁신한다면 어떤 산업이나 기업도 성장할 수 있



©프린트트렌드

며 제품과 공정의 혁신뿐만 아니라 조직구조와 기업문화, 복지 등에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인쇄환경을 통한 성공사례로 언급한 투데이아트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우수벤처기업으로, TRA 국제인증의 인증으로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모든 측면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 더글라스 매니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쇄’를, 한국코닥의 박승태 상무가 ‘친환경 인쇄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DGI 김성한 이사가 ‘국내산 친환경 디지털인쇄기계 개발에 따른 시장동향’을, 상동화 박재후 팀장이 ‘라벨 친환경인쇄 솔루션 및 소재’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 한국인쇄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다각적인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인쇄산업 경향 소개



©프린팅트렌드

한국인쇄학회(회장 오성상)의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회가 지난 11월 16일(목) 오후 1시 20분부터 스테이락호텔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환경과 인간을 위한 친환경 잉크 트렌드 : 최지원 (주)동양잉크 전무이사 △재택 중심의 오프셋 인쇄 생산 관리 시스템 구축 : 홍정우 한영문화사 실장 △인쇄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 배성준 한국후지필름BI 팀장 △ESG 경영에 부합한 디어스아이의 기

술 개발 : 안주영 디어스아이 선임연구원 △최적의 인쇄품질관리를 위한 측정 장비 구축 :김형엽 x-rite 이사,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성 :강현곤 신구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특히 최지원 동양잉크 전무이사는 “오프셋잉크는 안료, 전색제, 잉크 용제,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료에서는 유기안료, 전색제에는 페놀수지, 그리고 용제와 건조제 등에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있어 친환경잉크를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유럽의 경우 스위스 식품회사인 네슬레가이드에 따라 포장용 잉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시행중이며 삼성이나 LG 등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쇄직종 국제지도위원이기도 한 강현곤 신구대학교 그래픽 커뮤니케이션과 교수는 국제기능올림픽 인쇄직종에 대한 발표에서 “2024년 제47회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인쇄직종에는 오프셋인쇄, 디지털인쇄, 라지포맷인쇄, 잉크 조색, 재단 등 인쇄물 제작의 모든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진행하는지 테스트 하는데 다만 대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최소 14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1개국만 참가신청을 해 대회 개최 여부가 미지수”라 언급했다.

## DKSH코리아, 친환경 연포장 인쇄 솔루션 세미나 개최 한발 앞선 유럽 연포장 인쇄기술 소개



©프린팅코리아

글로벌 마켓 확장서비스기업 DKSH코리아와 이태리 인쇄기 제조 전문기업인 우테코가 지난 11월 2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에서 친환경 플렉소 인쇄 세미나 FLEX-ON-ROAD를 개최했다.

김계림 DKSH코리아 대표는 인사말에서 “DKSH는 소비자, 헬스케어, 생활화학, 기계 등 4개의 사업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기계사업 부에서 다양한 인쇄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며 “유럽 연포장시장은 플렉소인쇄가 9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5% 이내로 한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다양한 플렉소 인쇄 솔루션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FSC코리아, 2번째 비즈니스 포럼 개최 :숲에서, 숲을 위한 시장의 책임 있는 구매 제시

제2회 FSC코리아 비즈니스 포럼이 지난 11월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성공적 개최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약 130여 좌석이 전석 조기 예약된 이번 포럼에는 김 카스텐스 FSC인터내셔널 대표의 환영사와 산림청 임상섭 차장의 축사 및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의 문국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또한, FSC 코리아 홍보대사인 타일러 라쉬와 두자미를 초청하여 세대를 포괄하는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발표 및 토론에서는 한솔,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WWF 코리아 등 FSC와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 숲을 위한 시장의 책임 있는 구매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권성욱 FSC 코리아 대표는 “ 그동안 숲이 우리를 돌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숲을 돌봐야 할 차례”라며 “우리가 환경 활동가나 FSC 직원이 아니



©FSC코리아

더라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FSC와 함께 숲을 미래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을 위한 참석자들이 함께 네트워킹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복사기 문서 보안 강화 안면인식 리더기 출시 한국후지필름 BI, 중요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대표 하토가이 준, 이하 한국후지필름BI)이 사무기기 업계 최초로 복합기 사용자 보안에 특화된 안면인식 리더기 ‘케이제이 페이스 리더(KJ Face Leader)’를 출시했다.

한국후지필름BI는 최근 기업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한층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은 물론 신속하고 편리한 기능까지 갖춘 보안 솔루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물리 안보 전문 기

업 케이제이테크(대표 김명기)와 협력해 새로운 안면인식 리더기를 선보이게 됐다.

‘케이제이 페이스 리더’는 한국후지필름BI의 A3 복합기 제품군 전용 보안 솔루션으로, 강력한 보안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편의 기능들을 두루 갖춰 기업의 중요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경 사항
수디앤피	중구 을지로20길 16 (인현동1가)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5층(성산동, 신안빌딩)	주소
디자인 크레파스	중구 을지로16길 5-14, 1층(인현동1가)	마포구 성지길 25-11, 3층(합정동, 오구빌딩)	주소
(주)피노비앤디	마포구 독막로 101, 801호(상수동)	마포구 신촌로12길 65, 6층(노고산동, 비알빌딩)	주소

- 결혼**
- 동양문화인쇄사 박찬석 대표의 장남 종우군이 11월 18일 신도림 라마다호텔 웨딩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예성디앤피 김종욱 대표의 아들 선우군이 11월 25일 더하이트베일 4층 W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신성기획 송효성 대표의 장녀 주원양이 12월 3일 로얄파크웨딩 3층 로얄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부음**
- 카오스넷근아 전준호 대표의 빙모께서 11월 17일 별세했습니다.



# 상동화, eXact Basic Spectro 국내 출시

L\*a\*b와 Japan Color 측정 가능



라벨 인쇄, 연포장 및 디지털 인쇄 등 종합 패키징 인쇄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동화(주)(대표이사 김원기)가 최근 출시한 세계표준의 분광 농도 측정계 eXact의 새로운 모델인 eXact Basic Spectro를 국내에 소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eXact Basic Plus에 L\*a\*b와 Japan Color 측정이 더해져 색상 관리를 더욱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했다.

### eXact Basic Spectro의 주요특징으로는

- L\*a\*b 또는 색차(ΔE1976 또는 ΔE2000 등)의 측정
- Japan Color 작업 기능 지원
- Data Catcher에서 L\*a\*b 데이터 쓰기 지원
- M0/M1/M2/M3 지원
- 기존 eXact Basic Plus 기능 모두 승계
- eXact Standard 및 Advanced 모델로의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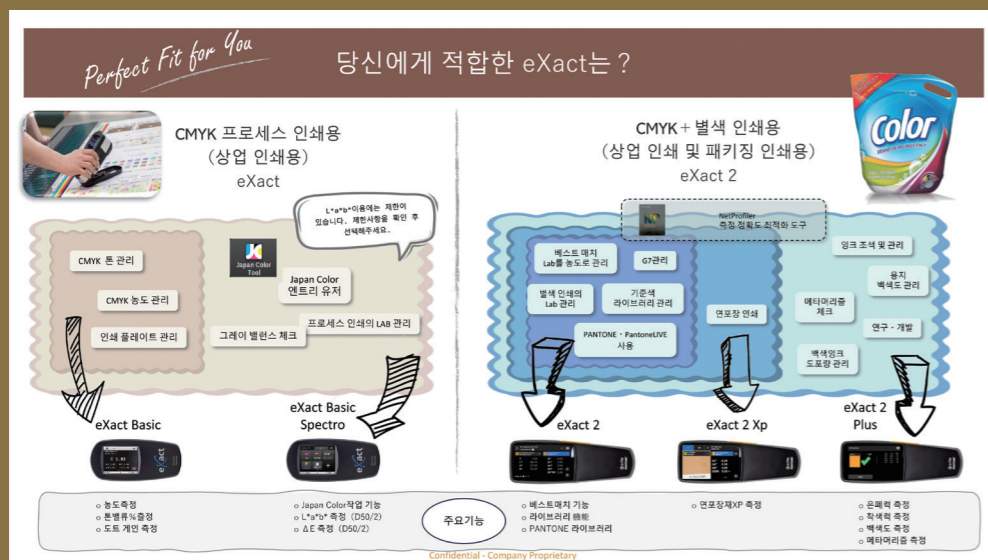
### eXact Basic Spectro의 제한으로는

- L\*a\*b, 색차표시는 D50/2로만 설정
- NetProfiler 지원 불가
- PANTONE Live 지원 불가
- IFS, ColorCert 등의 S/W와 연결 불가
- Japan Color 작업에서 Best Match 지원 불가
- eXact Manager 라이브 기능 지원 불가
- Data Catcher는 지원되는 데이터 유형에 한정한다.

한편, 상동화는 사용유형과 레벨에 따른 eXact 분광 농도 측정계를 공급하며 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 제품 및 구매 문의

상동화(주) ☎ 02-2279-5621



사용유형과 레벨에 따른 eXact 분광 농도 측정계의 주요 기능

# 걸어두근 싶은 작품집 & 캘린더



## 남이섬의 신화!

멀티 아티스트 강우현 昨

작품집 & 캘린더로 행복한 연말연시 가까운 이웃, 친지에게 선물해 보세요. 따뜻한 정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 작품집 & 캘린더 구성

#### 01 벽걸이 캘린더

- 접었을 때 : 가로 295×세로 346mm
- 펼쳤을 때 : 가로 295×세로 708mm

#### 02 탁상용 캘린더

- 가로 190×세로 336×폭 80mm

#### 03 작품 1점 (별지 인쇄본)

- 가로 290×세로 346

#### 04 최고급 상자

- 가로 313×세로 363×높이 33mm

### 주문 및 문의

서울인쇄조합 사업홍보팀 이재인 과장 ☎ 02-333-8631(내선 241)

정가 **35,000원**  
(부가세 별도)  
조합원 별도 문의



we create  
the future



## drupa 2024 참관단 모집 안내

8년을 기다려온 세계 최대·최고의 국제 인쇄 포장 전시회인 drupa 2024가 오는 5월 28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립니다. 이번 drupa 2024는 'we create the future'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인쇄 및 포장업계의 최신 혁신과 트렌드를 직접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코스	참관 일정	참관 경비
A코스 (4박 6일) 5월30일(목)~6월4일(화)	drupa 박람회 집중참관(3일) + 암스테르담 관광 ※ 슈바인하겐과 맥주 제공	4,360,000원 (대한항공)
B코스 (7박 9일) 5월30일(목)~6월 7일(금)	drupa 박람회 참관(2일) + 발칸관광 (두브로브니크, 헤르체그노비, 코토르, 스플리트, 트로기르, 자다르, 플리트비체, 자그레브, 부다페스트) ※스플리트 야경 및 간담회, 두브로닉 성벽투어 등	5,880,000원 (대한항공)

※ 자세한 일정 코스 사항은 서울인쇄조합 홈페이지(www.spiic.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여권 사본과 함께 ●이메일 : wkevin@naver.com ●문의: ☎ 02-565-434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관 신청서

참관 코스	A코스 <input type="checkbox"/> / B코스 <input type="checkbox"/> ※ 해당 코스에 V 표시	참관자명	
소속 및 직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항공권 예약, 해외여행자보험가입 등)		E-mail	
예약 정보 (객실 타입)	2인1실 <input type="checkbox"/> / 독실 <input type="checkbox"/> ※ 독실 신청 시 661,500원-추가 문의 요망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별도 문의)		

※ 참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루파 입장권 미포함)

- 신청금 입금(100만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남강항공) 572-910002-62804
- 관련 문의 : 남강항공 ☎ 02-565-4343 / 서울인쇄조합 ☎ 02-333-8631 사업홍보팀 (내선 258)

- 가죽친화 우수기업
- MAINBiz
- 경영혁신명 중소기업
- km3 ISO 9001
- km3 ISO 14001
- kidp
- 한국디자인진흥원
- 조달청
- FSC
- KOCCA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창작디자인연구소
- 2019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 KYUNGSUNG 경성문화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 SANG DONG HWA

당신의 고민!!  
40년 노하우의 **상동화**가  
해결합니다.

라벨, 플렉소, 제판, 패키징, CMS  
고민이십니까?  
진정한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40년의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를 선택하십시오!



t. 02) 2279-5621 [www.sangdonghwa.com](http://www.sangdonghwa.com)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1205호) | Fax: (02) 2277-7015 | [www.sangdonghwa.co.kr](http://www.sangdonghwa.co.kr) | [sdh5621@sdh5621.com](mailto:sdh5621@sdh5621.com)



디테일이 만드는 내일 **EPSON**  
EXCEED YOUR VISION